

언어 영역

- | | | | |
|-------|-------|-------|-------|
| 1. ㉠ | 2. ㉡ | 3. ㉢ | 4. ㉣ |
| 5. ㉤ | 6. ㉥ | 7. ㉦ | 8. ㉧ |
| 9. ㉨ | 10. ㉩ | 11. ㉪ | 12. ㉫ |
| 13. ㉬ | 14. ㉭ | 15. ㉮ | 16. ㉯ |
| 17. ㊱ | 18. ㊲ | 19. ㊳ | 20. ㊴ |
| 21. ㊵ | 22. ㊶ | 23. ㊷ | 24. ㊸ |
| 25. ㊹ | 26. ㊺ | 27. ㊻ | 28. ㊼ |
| 29. ㊽ | 30. ㊾ | 31. ㊿ | 32. ㋀ |
| 33. ㋁ | 34. ㋂ | 35. ㋃ | 36. ㋄ |
| 37. ㋅ | 38. ㋆ | 39. ㋇ | 40. ㋈ |
| 41. ㋉ | 42. ㋊ | 43. ㋋ | 44. ㋌ |
| 45. ㋍ | 46. ㋎ | 47. ㋏ | 48. ㋐ |
| 49. ㋑ | 50. ㋒ | 51. ㋓ | 52. ㋔ |
| 53. ㋕ | 54. ㋖ | 55. ㋗ | 56. ㋘ |
| 57. ㋙ | 58. ㋚ | 59. ㋛ | 60. ㋜ |

2003학년도 수능 언어영역 해설

1. [듣기 대본] 이제 여러분에게 스포츠 고양 강좌를 들려 드립니다. 그림을 보며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겨울 스포츠, 스노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노보드의 구조를 보면, 보드는 앞뒤가 살짝 들려지고 가운데는 바닥에서 약간 떠 있는 듯한 긴 판자 모양으로, 단단하면서도 탄성력이 있습니다. 보드의 속은 밑바닥에 합성 수지로 된 베이스가 있고, 그 위에 가장 핵심 부분인 '코어'가 있습니다. 또 보드의 가장자리인 엣지는 눈으로부터 보드를 보호하고, 눈과의 접촉으로 마찰력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스노보드의 운동 원리를 보면, 보드가 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점점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그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속도를 줄여줍니다. 스노보드를 탈 때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은, 눈으로 덮인 바닥 면과 보드가 닿는 면과의 이런 마찰력으로 인해 보드의 속도가 무한히 빨라지지 않고, 속도를 조절해 눈 위를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노보드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네, 우선 진행하려는 쪽으로 몸의 무게 중심을 가져가 진행 방향 쪽 발에 살짝 힘을 주면, 진행 방향과 스노보드 방향이 일치하면서 미끄러지지요. 반대로 멈추려면 진행 방향 반대 쪽 발에 힘을 주면, 반대 쪽 발이 앞으로 나가면서 스노보드의 방향을 진행 방향과 수직으로 만들고, 마찰력이 증가해 속도가 서서히 줄면서 멈추게 됩니다. 한 마디로 진행 방향 쪽 발은 엑셀러레이터, 반대쪽 발은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 ㉡ : '스노보드를 탈 때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은, 눈으로 덮인 바닥 면과 보드가 닿는 면과의 마찰력(㉠)이 있고, 다음으로 보드를 탄 사람의 신체가 공기(㉡)로부터 받는 공기 저항력이 있지요.'에서 언급되었어. ㉢ : 마지막 부분의 '진행하려는 쪽으로 몸의 무게 중심을 가져다 진행 방향 쪽 발에 살짝 힘을 주면.'에서 언급된 거지. ㉣ : 앞부분의 '보드는 앞뒤가 살짝 들려지고~'에서 언급했어. ㉤ : 이 강의 어디에서도 보드를 탄 사람의 팔꿈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 이게 답! 답 ㉤

2. [듣기 대본] 이번에는 방송 뉴스를 들려 드립니다. 물음과 답지까지 다 들은 후에 푸는 문제이니,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앵커 : 최근 전통 문화재 보존 정책을 시행하면서, 지역 주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한때 시 당국과 갈등이 심했던 한 한옥 마을을 기자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기자 : 네, 여기는 유서 깊은 한옥 마을 앞입니다. 시와 마을 주민 간의 갈등은 시 당국이 이 마을 기와 집 800여 채를 보존하기 위해 한옥 보존 지구로 지정한 197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의 엄격한 규제 때문에 신축은 물론 집수리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지붕이 새고 벽체가 기우는 등, 마을은 점차 낙후되어 갔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심각한 피해를 주었겠군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기자 : 네, 시 당국과 주민들이 마을의 옛 모습도 지키면서 주민의 고통도 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 1999년 이 지역을 전통 문화 특구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도는, 전통 문화재는 계속 보존하되 마을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고 적절한 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앵커 : 네, 적절한 혜택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 가령, 외국인이나 학생들을 위한 한옥 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지역 특산품을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앵커 : 그렇다면, 이제 그 갈등은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까?

기자 : 네, 여전히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이러한 대책을 환영하고 있으며, 마을은 점차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다.

자, 이제 물음과 답지를 함께 들려 드립니다. 다음 중, 이 방송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 시청자는 누구입니까?

첫째 시청자(남 1) > 지역 주민의 불이익을 사회 전반에 알리려고 하는거야.

둘째 시청자(여 1) > 전통 문화재에 관한 시 당국의 문화 정책을 비판하는거야.

셋째 시청자(남 2) > 지역 주민에게 전통 문화 보존 의식을 고취하려고 하는 거야.

넷째 시청자(여 2)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 문화 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있어.

다섯째 시청자(남 3) > 전통 문화재를 보존하는 방안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어.

이 방송 뉴스는 전통 문화재 보존 정책으로 인해 시 당국과 갈등을 빚었던 한 한옥 마을이 한옥 생활 프로그램 운영이나 지역 특산품 전시 및 판매 등의 대책을 통해 마을의 옛 모습도 유지하고 주민들의 이익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이 방송 뉴스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전통 문화재를 보존하는 방안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어.'라고 한 다섯째 시청자야. 답 ⑤

3. [듣기 대본] 이번에는 연설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말들이 모두 가치가 있는 말일까요?

모두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재단사는 임금님을 속여서 벌거벗은 채 사람들 앞에 나서게 하지요. 임금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듯 뽐내고 있지만, 사실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 한 꼬마가 "임금이 벌거벗었다!"라고 외칩니다. 꼬마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비로소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유형의 말이 나옵니다. 바로 '재단사의 말'과 '꼬마의 말'이지요. 재단사의 말은 거짓된 말이고 꼬마의 말은 진실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임금님처럼, 우리도 세상을 현혹하는 재단사의 말과 진실을 깨우치는 꼬마의 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말들을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는 아이들을 위한 우화일 뿐이라고 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화려하게 꾸며대는 '법률가의 말'과 장터에서 회자되는 '환전상의 말' 두 가지로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꾸밈없는 환전상의 말로 대화를

펼치며 세상을 현혹하고 있는 사람들을 벌거벗겼습니다. 그로 인해 사형 판결을 받고 죽어가는 순간까지, 소크라테스는 환전상의 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친구와 가벼운 대화를 하기도 하고, 어떤 내용을 사실이라고 알려 주기도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강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혹시 내가 하는 말이 재단사의 말, 법률가의 말은 아닌가요? 자, 모두들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① :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와 소크라테스 이야기라는 적절한 사례를 들고 있어. ②, ⑤ : 거짓된 말을 '재단사의 말'과 '법률가의 말'에, 진실된 말을 '꼬마의 말'과 '환전상의 말'에 비유(⑤)하고, 이를 대비시켜 진실된 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선명하게 제시(②)하고 있지. ③ : 앞부분의 '그 말들이 ~ 말일까요?', 중간 부분의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뒷부분의 '혹시 내가 하는 말이 ~ 아닌가요?' 등 물음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해 설득력을 높이고 있지. ④ : 이 연설은 일반적인 사실을 먼저 제시한 후 특수한 사실을 이끌어 내는 연역적 전개 방식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실을 제시해서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적 추론 방식이 사용되었어. 따라서, 답! 답 ④

4. [듣기 대본] 이번에는 옷에 관한 인터뷰 내용을 들려 드립니다. 인터뷰 내용을 들은 뒤에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30대 회사원) : 사회에서 성공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옷도 잘 입더라고요. 비싸고 품나는 정장으로 말이죠. 하지만 난 정장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를 구속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옷 때문에 내가 구속당하는 건 싫어요. 나를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옷. 나는 그런 옷을 입어요.

여(10대 학생) : 옷은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개성이라고 하면 외모 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 표현하는 것이죠. 나의 외모뿐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 표현해 주는 옷, 그런 옷을 입을 때 내 몸과 마음은 하나가 되고 편안해져요.

남(70대 할아버지) : 요즘 젊은애들 옷 입는 거 보면 정말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느껴. 개성이니 뭐니 얘기하지만, 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사람의 혼을 다 빼놓는다니까. 옷은 그런 게 아니야. 한복 좀 봐. 보기에 단정하고 입으면 얼마나 좋은데. 차분하고 편안해지는 것이. 옷은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몸만 감

싼다고 다 옷이 아니야.
여(40대 주부) : 내가 옷을 입어 보니 비싸고 보기에
좋다고 좋은 옷이 아니더라고. 옷은 입어서
편해야 해.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어야지. 울적할 때 마음에 드는 옷
입고 외출 한번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 다들 경험해 보잖아.

인터뷰 내용의 공통점을 찾으면 되는 문제. 첫 번째
남자는 ‘나를 편안하게 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옷’을 입
는다고 했고, 두 번째 여자는 ‘그런 옷(나의 생각과 마
음까지 표현해 주는 옷)’을 입을 때 내 몸과 마음은 하나
가 되고 편안해져요.’라고 했어. 그리고 세 번째 남자
는 옷은 입어서 차분하고 편안해져야 한다고 했고, 네
번째 여자는 옷은 입어서 편하고 때로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도 있어야 한다고 했지. 따라서, 인터뷰 대상자들
의 공통된 생각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③ ‘당신의 마음
까지 감싸 주는 옷입니다.’야. 답 ③

5-6. [듣기 대본] 이번에는 좌담회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여, 20대) :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지털 시대
의 방송 매체와 수용자의 태도’라는 주제로
세 분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 선생님(남, 40대) :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대표적인
매체가 디지털 방송입니다. 디지털 방송은
수용자의 위상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입니다. 디지털 방송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용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방송 내용을 일방적으
로 받아들이기만 하던 수용자가 자신의 목적
에 따라 매체를 이용하고 정보를 조직하는
능동적인 사용자로 바뀌는 거지요.

사회자 : 디지털 방송은 수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그
결과 수용자를 능동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말
씀이신데, 수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김 선생님 : 방송 시간은 물론이고, 스포츠 방송의 경
우엔 어느 위치에서 경기를 볼 것인가도 선
택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 프로그램을 우리
말로, 우리말로 된 프로그램을 외국말로 들
을 수도 있지요. 그뿐 아니라 프로그램 내용
또한 수용자가 자기 나름대로 재편집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정말 다양한 선택권이 수용자에게 주어지는군
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디지털 방
송은 수용자가 변화할 수 있는 기술적 환경

만을 제공할 뿐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
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수용자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시
는지요?

이 선생님(여, 40대) : 맞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말씀
하신 능동적 수용자로서의 변화는 저절로 이
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은
수용자의 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남
을 제공할 뿐입니다. 수용자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사회자 : 이 시점에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수용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더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정보 선택의 자유라는 의
미에 그치지 않는 걸 뜻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박 선생님(남, 30대) : 수용자들의 비판적인 태도를 빼
놓을 수 없겠지요. 사실 여러 가지 매체들은
우리들 앞에 무수한 정보를 쏟아 놓고 있잖
아요? 그렇게 정보의 양이 많아지면, 자본의
논리에 따라 생산된 무익하거나 유해한 정보
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지요. 따라서 수
용자들은 자본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어떤
정보가 타당하고 가치 있는 정보인지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하겠어요.

사회자 : 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매체 수용자라면
기본적으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
각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지만 비판과 감시를
통해 정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을
개인의 몫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요? 이런 점에서 시민 단체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5. ①, ⑤ : ‘디지털 기술은 수용자의 위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만을 제공’한다. (⑤)고 했을 뿐, ‘디지털
시대의 수용자는 디지털 기술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
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지. 따라서, ①은 좌담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냐. ②, ④ : 정보의 양이 많아지
면, 자본의 논리에 따라 생산된 무익하거나 유해한 정
보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하면서 수용자들은
어떤 정보가 타당하고 가치 있는 정보인지 가릴 줄 아
는 비판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했어. ③ : 디지털 방
송은 ‘방송 내용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던 수용
자’를 능동적인 사용자로 바꾼다고 했어. 그러니까 디
지탈 방송 이전에는 정보 전달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
다고 할 수 있지. 답 ①

6. 사회자는 디지털 방송이 수용자를 능동적으로 변화
시킨다는 첫 번째 발언자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 뒤, 다
른 발언자들의 말에 이어 수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

위, 수용자의 태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수용의 의미에 대해 질문하고 있어. 즉, 사회자는 앞에서 발언한 사람의 말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심화된 보충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답은 ‘ㄱ, ㄴ’을 묶은 ②이야. 답 ②

7. 여기에서 분석한 내용은 ‘청소년들이 왜 통속적인 문학 작품을 읽는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위한 거야. 그런데 ㉠ ‘통속적인 문학 작품을 쓸 때 진지한 사고 과정을 담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논의해야겠어.’는 통속적인 문학 작품을 쓸 때 생각할 점이지. 따라서, ㉠은 글의 내용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 분석 내용에 적절하지 않아. 답 ③

8. ‘노동 인구의 수가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를 ‘현 시점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불필요하다.’에 근거라고 했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출산은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적절하지. 반론의 근거는 될 수 없어. 그러니까 ⑤는 연결이 잘못된 거지. 답 ⑤

9. <자료1>은 과학자들에게 연구 환경의 개선과 경제적 처우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고, <자료2>는 과학 기술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 두 자료를 활용해서 개요를 수정한다면 ⑤가 가장 적절하지. 답 ⑤

10. 다리다 : (옷이나 천 등을 다리미로) 눌러서 문지름으로써 구김살을 펴지게 하다. 달이다 : (한약 따위를) 물에 넣고 끓여서 우려나오게 하다. 즉, ①은 서로 반대로 쓴 거야. 그러니까 잘못된 문장이지. 답 ①

11. 2행 - ‘늦은 저녁, 내리는 눈발은 집으로 가는 사람들 등 뒤에만 봄비다’ : 1행과 비슷한 어구를 겹쳐 써서 ‘눈발’의 의미를 심화시키고 있어. 3행 - ‘가난한 사람들의 마을을 감싸는 저 따뜻한 손길’ : ‘눈발’을 의인화해서 ‘따뜻한 존재’라는 독창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따라서, <보기>의 전개 과정에 따라 완성한 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야. 답 ①

12. ㄱ : (가)의 길고 산만한 첫 번째 문장을 (나)에서 3개의 간략한 문장으로 나눠 썼어. ㄴ : (가)의 ‘그네를 탈 때 놓치지 않으려면’을 보면 무엇을 놓치지 않으려는지 목적어가 빠져 있어. (나)에는 ‘그넷줄을’이라는 목적어가 있지. ㄷ : (가)는 ‘그네를 탈 때 놓치지 않으려면 ~ 그네를 탈 때 좀 더 높이’라고 해서 동일한 의미를 지닌 구절이 중복되어 씌었어. 하지만 (나)에서 이것이 고쳐지지 않았네. 이게 답! ㄹ : (가)의 ‘근육이 강화되어지고’는 번역투의 수동 표현이야. 이걸 (나)에서는 ‘근육을 강화하고’로 고쳤군. 답 ④

13. (가)의 화자는 사랑하는 ‘행인(당신)’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고, (다)의 화자는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흐르는 물로 만나자.’라고 하면서 ‘나’와 ‘너’가 ‘우리’로 만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어. 따라서 ‘(가), (다)’에는 사랑하는 대상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드러나 있다.’라고 한 ②가 적절한 설명이지. 답 ②

14. (다)에서 ㉠ ‘물’이 ‘죽은 나무뿌리를 적’ 신다는 것은 ‘물’이 현대 사회의 여러 병폐에 찌들어 사라져 버리는 것들에 새 생명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정화와 재생’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옳아. 따라서, ㉠ ‘소멸과 죽음’의 의미를 지닌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 답 ③

15. (가)는 참된 사랑의 본질인 희생과 믿음을 노래한 시로, 2연에는 ‘당신’에 대한 ‘나’의 헌신적 태도가 형상화되어 있기는 해. 하지만 하고자 하는 말을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적인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지. 따라서 ④ “2연은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당신’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희생이 무조건적임을 드러내고자 한 거 같아.”는 (가)를 잘못 이해한 거지. 답 ④

16. <보기>에서 (나)의 [A]로 고쳐진 부분을 살펴보면, ‘내 혼자 마음을 나처럼 아실 분이 → 내 혼자 마음 날 같이 아실 이’, ‘향이 맑은 → 향맑은’, ‘하련만 → 하오련만’, ‘연기인 듯 → 연긴 듯’, ‘희미한 → 희미론’, ‘모르리라 → 모르리’로 바뀌었어. (나)의 [A]는 이렇게 음절을 줄여 씀으로써 리듬감을 살리고 내밀하고 섬세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따라서, ③이 고쳐 쓴 이유로 가장 적절해. 답 ③

17. (다)의 ㉠은 ‘숲이 된 뽕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고통과 괴로움을 보듬고 위로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지. 이와 유사한 시적 정조가 나타난 것은 ④야. 할머니가 소 목덜미에 손을 얹어 소를 보듬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있으니까. 답 ④

18. 끝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자. ‘예컨대 고생대 말에 삼엽충과 푸줄리나가 갑자기 사라졌다. 이러한 대규모 멸종의 원인에 관해서는 여러 가설이 있는데, 운석의 충돌도 그 중 하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어. 즉, 이 글에는 운석의 충돌로 삼엽충이 멸종되었을 것이라는 내용만 있을 뿐, 삼엽충의 탄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 따라서, ②는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야. 답 ②

19. 이 글은 운석에서 나온 외계의 유기 분자가 지구 생명의 기원이 되었다는 주장(포자설), 운석이 지구에 충

돌해 지구상의 생명을 멸종시켰다는 주장. 외계에서 온 유기물과 지구에서 만들어진 유기물이 모두 생명의 탄생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주장 등을 필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즉, 이 글은 서로 다른 주장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전개되고 있는 거야. 따라서, ④가 이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하지. 답 ④

20. 필자는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설들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설’은 근거를 가져야 성립할 수 있다(③)는 걸 알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기까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가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양하게 제기될 것이다.’를 보면, ‘가설’은 타당성을 검증할 방법을 찾아(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는 한은 다양한 가설들이 생겨나서 다른 가설들과 서로 경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 또, 이를 통해 ‘가설’은 과학적 증거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된다(⑤)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하지만 ‘중도적인 입장에서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가설’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 답 ②

21. [A]와 <보기>를 대응시켜 보자

- ㉠ - 4~6세기 경에 축조된 신라 고분 금령총에서 유리구슬이 나왔다.
 - ㉡ - 금령총에서 발굴된 유리구슬에서 알칼리 석회 성분이 검출되었다.
 - ㉢ -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신라에서는 유리를 제조하지 않았다.
 - ㉣ - 당시 아라비아에서만 알칼리 석회 성분이 포함된 유리를 생산했다.
- 이렇게 살펴보니, <보기>에는 추론의 결론에 해당하는 ㉣가 없네. 따라서, 답은 ⑤. 답 ⑤

22. ‘유기 분자가 운석에 실려 외계에서 지구로 ㉠온다는 것은 ~’은 유기 분자가 운석에 실려 외계에서 지구로 흘러 들어온다는 의미야. 이러한 의미의 말은 ‘유입’이지. 이건 ‘(물이나 공기 따위를) 흘러서 들어옴’을 뜻하는 말이거든. 답은 ③이네. ①은 ‘물자나 자금을 들여 넣는다.’는 의미이고, ②는 ‘외국의 물품을 사들인다.’는 의미야. ④는 ‘이미 짜여진 대열 등에 끼어 들어간다.’는 의미이고, ⑤는 (기술·방법·물자 등을 외부에서 내부로) 끌어들인다. ‘는’ 의미지. 답 ③

23. 이 글의 중간 부분을 보면, ‘내가 연경에서 돌아오니 국내 사람들이 잇달아 와서 중국 이야기를 들려 주기를 청하는 것이었다.’라고 했어. 그리고 필자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모두가 장차 유도를 밝히고 백성을 다스릴 사람들이라도 했지. 즉, 지식인들은 연경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필자를 찾아올 정도로 연경의 상황에 관

심이 많은 거야. 따라서, ④는 필자가 지적할 만한 내용이 아니지. 답 ④

24. ㉠은, 필자가 이번 중국 여행에서 물려받은 큰 선비를 보지는 못했지만 자신이 천하의 서적을 다 읽지 못했고, 천하의 지역을 두루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에 정말 큰 선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는 부분만을 보고 전체가 그러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이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②. ②는 유럽의 백조가 희다고 해도(부분) 전 세계의 백조를 다 본 것은 아니므로 전 세계의 백조가 희다(전체)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 답 ②

25. 이 글의 필자는 중국의 제도와 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했어. 그리고 <보기>는 위인의 업적을 숭배하고 따르기보다는 그들이 기존의 권위에 도전한 방법과, 갈등과 역경을 극복한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보기>와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이 이 글의 필자에게 충고한다면, 중국의 문물이나 제도 자체보다는 중국이 변혁해 온 경로와 의지를 배워야 한다는 내용의 말을 할 거야. 따라서, 답은 ②지. 답 ②

26. 다섯 번째 문단을 보면, 필자는 자신에게 연경의 이야기를 해 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연경의 발달된 문물 이야기를 듣고는 하황되게 여겨 믿지 않았다고 했어. 그리고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는 아주 다르다는 듯이 이상한 표정을 짓고 돌아가면서 필자에게 호국 편만을 든다고 했다고 했지. 즉, 필자는 자신의 경험적인 사례를 통해 사람들의 통념이 편협함(중국으로부터는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을 드러내어 우리 나라도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고 있어. 따라서, 답은 ④네. 답 ④

27. ㉠은 중국에서 본 것들에 대한 설명이야. 말과 문자가 같은 것, 화려하게 단장한 집, 수레가 통행하는 것, 향기로운 냄새, 도읍, 성곽, 음악의 변화함과 아름다운 풍경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필자는 대상을 예찬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를 보자. 얼굴, 입 모양, 살결, 속눈썹 등 그의 모습을 찬미, 예찬하는 태도로 설명하고 있네. 따라서, ㉠과 대상에 대한 태도가 유사해. 답 ②

28. (가)의 ‘바람’은 자연(풍광)을 의미하고, ‘벗’은 풍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람, ‘파람’은 휘파람으로 자연을 즐기는 풍류를 의미해. 그리고 (나)의 ‘청풍(淸風)’은 땀을 흘리고 벌을 찌며 일하다가 잠시 쉬면서 쉼 많은 바람이고, ‘파람’은 역시 휘파람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나타내지. 그리고 ‘길 가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을 의미해. 이렇게 시어의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④“(가)의 ‘파람’은 자연 속에서의 풍류를 표현하는 것이고, (나)의 ‘파람’은 노동 후의 휴식을 표현하는 것이다.”가 적절한 설명이야. 답 ④

29. ㉠은 ‘내 몸이 한가로울 겨를이 없다.’는 뜻이고, ㉡는 ‘세월이 한가하다.’라는 의미야. 즉, ㉠은 여기저기 자연을 구경하느라 한가한 틈이 없다는 것이고, ㉡는 자연을 즐기는 느긋한 마음을 한가롭다고 표현한 거지. 따라서, ㉠과 ㉡를 관련지어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⑤ ‘자연 속에서 이리저리 노니는 한가로운 정서를 즐기기에 겨를이 없다.’야. 답 ⑤

30. [A]는 ‘복희씨의 태평성대를 모르고 지냈었는데 이때야말로 태평성대구나. 신선이 어떻던가. 이 몸이 야말로 그것이로구나. 강산 풍월 거느리고 내 평생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의 이백이 살아 온다 한들 넓고 끝없는 자연과 하나된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지. 이와 같은 주제 의식을 담고 [A]의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①이야.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자유와 행복감을 느끼며 자신의 존재의 고귀함을 깨닫는다고 했으니까. 답 ①

31. (나)의 <4장>은 아침부터 들에 나가 농사일을 하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는 즐거움을, <6장>은 저녁 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을 노래하고 있어. 즉, 농촌 생활의 본주함과 함께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고(⑤), 다른 사람들(‘길 가는 손님’)과의 유대(④)나 시간의 경과 및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 있지(③). 그리고 <4장>의 1행을 보면 시어가 반복돼 시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고(①). 하지만 ‘머무는고’, ‘재촉하는고’와 같은 의문형의 종결 형태는 시적 정서를 드러내는 것일 뿐, ‘삶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야. 따라서, ②는 잘못된 감상이지. 답 ②

32. 이 글의 내용을 살펴보자. 심씨는 취선과 화빙선이 얘기를 나누는 걸 알고는 화진과 화빙선이 화춘의 장자 자리를 빼앗으려고 모의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화진을 오라 해서 마당에 꿇어 앉혀 놓고 화춘의 적장자 자리를 빼앗고자 누이 빙선, 종 취선과 함께 불측한 일을 꾀했다고 추궁하지. 이에 대해 화빙선은 ‘큰집 작은집이 모두 혈육이니 이 자리를 빼앗고 저 사람과 협력한다는 말씀은 만만부당하나다.’라고 대답했고.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심씨가 화빙선과 화진을 못 살게 구는 것은 가문 내에서 자신의 아들 화춘의 장자로서의 권한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어. 따라서, ③이 이 글에 그려진 갈등의 근본 원인이지. 답 ③

33. <보기>는, 부모의 뜻이 의리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뜻을 따르고, 이치를 해치는 것이라면 기운을 화평하게 하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여 부드러운 음성으로

간하여 반복 개진함으로써 부모가 이치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야. 즉, 부모가 잘못되었으면 자식은 온화 온화한 말로 반복해서 그 잘못을 얘기해 고치도록 해야 한다는 거지. ①을 보자. 진에게 심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희망을 잃지 말고 어머니가 의리를 깨닫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성껏 얘기를 하라는 거니까 <보기>의 관점에서 한 말로 적절해. 답 ①

34. [A]에서 화춘은 진이 남매(화진, 화빙선)가 성 부인과 합심하였으니 지금 당장에는 제거할 수 없으며, 유생이 이 변을 알고 얼굴빛이 좋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참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 즉, 화춘은 상황을 근거로 의견을 말하고 있는 거지. 반면 심씨는 성 부인의 생각이 음흉하여 자기 모자를 죽일 것이며, 진이 유생에게 자신의 부덕함을 누설하였다고 했어. 이는 상황을 주관적으로 해석해 화춘에게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대화의 특성을 바르게 말한 것은 ④지. 답 ④

35. ‘오륜이 중하고 오륜 중에 부자지간이 더욱 중하니, 부친과 모친은 한 몸이라.’라는 화진의 말을 통해, 이 글이 윤리적 덕목을 내세워 교훈을 주고 있음(③)을 알 수 있어. 하지만 이 글에 시간이나 공간적 배경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 따라서, ②는 이 글을 읽고 나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아. 답 ②

36. ① : ‘면중복배’는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속으로는 배반함을 이르는 말이야. 하지만 이 글에서 화춘이 화진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는 부분은 없지. ② : ‘동병상련’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위해 주는 걸 말해. 화진과 빙선은 심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같은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적절하지. ③ : 심씨는 화진이 불측한 일을 꾀했다고 하며 하지도 않은 일로 그를 다그치고 있지.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끌어내어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경우로, ‘견강부회’가 어울려. ④ : ‘천양지차’는 아주 차이가 심함을 이르는 말이야. 화진과 화춘은 형제이기는 하지만 화진은 부모형제의 도리를 알고 이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고, 화춘은 형제를 괴롭히는 도리를 모르는 인물로 나오니까 적절하지. ⑤ : ‘각골지통(刻骨之痛)’은 뼈에 사무치게 원통함을 이르는 말이야. 빙선은 자신을 괴롭히는 심씨로 인해 이렇게 느낄 수 있어. 답 ①

37. 첫 번째 문단에서 ‘지도는 ~ 인간의 의사 소통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활용되어 왔다.’(①)고 했어. 또,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조선 시대에 제작된 지도들의 대부분은 관 중심으로 만들어져 통치와 행정의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었다.’(③)고 했지.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의 ‘광복 이후가 되어서야 비로소

지도는 대중에게 보급될 수 있었다.’는 내용을 통해 ②를 알 수 있고, 또, 네 번째 문단의 ‘근래 컴퓨터의 이용이 보편화되고 컴퓨터 용량이 대형화됨에 따라 컴퓨터 지도가 발달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④를 확인할 수 있어, 하지만 네 번째 문단을 보면, 주제도가 발달하게 된 것은 지도의 크기가 대형화되면서가 아니라, 컴퓨터 지도가 발달하면서부터라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⑤는 이 글과 다른 내용이야. 답 ⑤

38. 끝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지도는 기존의 지도는 컴퓨터 지도든 모든 기호 체계를 사용한다고 했어.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 지도는 인간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했지. 이러한 내용을 통해 지도는 ‘공간 정보를 기호 체계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 답 ①

39. 이 지도에서 조선은 유럽에 비해 실제보다 매우 크게 나타나 있어. 이는 신흥 국가 조선을 세계 속에서 확신하고 싶어했던 당시 사람들의 소망을 담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때는 국가와 왕이 동일시되는 시대였음을 생각하면, 이는 당시 조선 국왕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어. 따라서, ③은 이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 답 ③

40. 마지막 문단에서 지도는 세계를 바라보는 ‘창’이라고 했어. 즉, ‘창’은 세계를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인식의 매개’인 거지. 그리고 이러한 ‘창’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갖가지 의미를 이끌어 낼 때 지도는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담은 훌륭한 한 권의 ‘책’이 된다고 했으니 ‘책’은 ‘인식이 확대’된 것을 말하는 거야. 답 ⑤

41. 문맥적 의미를 살펴보면, ㉠ ‘같은’은 ‘부류에 속하는 것’의 의미로 사용되었어.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①이지. ②는 ‘동일한’, ③은 ‘추측’, ④는 ‘비슷한(비유)’, ⑤는 ‘자격(답다)’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어. 답 ①

42. 두 번째 문단을 보면, ‘해프닝은 우리 삶의 고통이나 희망 등을 논리적인 말로는 더 이상 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내세운다.’고 했지. 또, ‘우리의 삶 자체가 일회적이고, 일관된 논리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야말로 해프닝과 삶 자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고, 이를 통해 ⑤ ‘해프닝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반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삶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답 ⑤

43. <보기>의 시를 보면 기존의 시와는 다르게 무얼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 이해가 잘 되지도 않아. 이 시는 이렇게 일상적 관습에서 벗어나 고정 관념을 깨뜨리고

있으므로 해프닝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그런데 ①을 보자. <보기>의 시가 당시 현대시의 주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했네. 하지만 이 시는 당시 현대시의 주류와 거리가 멀 뿐더러, 당대의 주류라는 것이 해프닝의 특성도 아니지. 따라서, ①은 잘못된 설명이야. 답 ①

44. <보기>의 () 안에는 해프닝의 특징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해. ④를 보자. ‘자의식이 강하고 우발적이므로 관객 사이의 합의를 얻지 못한다.’는 것은 <보기>의 앞부분에서 얘기한 기존의 예술의 관습과 대조되는 해프닝의 특징이야. ④는 이와 관련해 해프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니 정답이지. 답 ④

45. 이 글에서 얘기하고 있는 해프닝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돼. 이 글에 따르면 해프닝 예술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실험 정신이야. 즉, 기존의 고정된 예술의 개념을 무너뜨리는 것이지. <보기>에 제시된 해프닝 예술 작품은 이러한 해프닝 예술의 모험 정신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고. 또, <보기>에서 이 작품은 거대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해 관객들에게 불쾌감마저 일으킨다고 했으니 사물의 의미를 전복시켰다고 할 수 있지. 따라서, ‘고정된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예술’을 표제로 삼고, ‘사물의 확대를 통한 의미의 전복’을 부제로 붙일 수 있어. 답 ①

46. ‘해거리’는 ‘한 해를 거름. 격년(隔年)’을 의미하는 말이야. 그런데 거리²의 ㉠은 ‘제시한 시간 동안 해 낼 만한 일’이라는 의미니까 ‘해거리’와 전혀 관련이 없지. 따라서, ④는 잘못된 내용이야. 참고로, ‘해거리’는 ‘해’에 거리⁶ ‘주기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가 결합된 거지. 답 ④

47. 부장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 그리고 고구려군이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낙랑을 정벌하기 위해서는 공주가 복을 찢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 즉, 부장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의 불가피함과 고구려군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공주로 하여금 복을 찢게 만든 행동이 정당했다고 호동을 설득하고 있는 거야. 답 ③

48. ㉠이 속한 문장은, 낙랑에는 자명고(自鳴鼓)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고구려군이 낙랑을 공격하였다면 고구려군은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내용이지. 다시 말해 고구려가 자명고를 그대로 놔두고 낙랑과 싸움을 했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다는 거야. 따라서, ㉠에 들어갈 속담으로 적절한 것은 ② ‘섞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격’이지. 이건 자기 스스로 화를 불러들인다는 뜻으로, 아주 위험한 상황을 의미하거든. 답 ②

49. ‘돌아가신 낙랑 공주에게 미안해서 그러십니까?’라는 부장의 말을 통해, 공주가 호동을 위해 자명고를 찢었음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호동이 ㉠처럼 말한 것은 자신으로 인해 공부가 죽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옳았는지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지. 따라서, ㉠ 부분에서 연출가가 배우에게 조연할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야. 답 ㉡

50. [A] 부분은 낙랑 공주가 낙랑과 고구려의 평화 고섭이 잘 되지 않자 호동에게 자명고의 존재를 알리고 자명고를 찢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중심이 되는 인물은 공주라고 할 수 있지. 그런데 ㉢을 보면 [A] 부분에서 극중 역할이 제일 중요한 사람은 부장이라고 했네. 그리고 [A] 부분에서 호동 곁에 늘 부장이 등장하는 게 아닌데도 부장이 늘 호동 곁에 등장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게 좋다고 했고. 따라서, ㉢은 이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거야. 답 ㉢

51. ㉠은 앞의 말을 인정하는 말로 ‘예’ 또는 ‘그렇다’로 바꿔 쓸 수 있어. ㉡는 ‘그러하다(그렇게 생각하다)’라는 뜻이고, ㉢은 ‘그렇게 하는’, ㉣은 ‘그와 같이 했다’는 뜻이지. ㉤도 ‘그렇게 했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만 ‘예’라는 긍정의 뜻이고, 나머지는 모두 ‘그와 같다’는 의미네. 따라서, 사전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이지. 답 ㉠

52. <보기>는 문학 작품의 비평 중에서 작품의 외적인 요소, 그 중에서도 현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비평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 ㉠은 소설의 인물, ㉡는 소설의 문장, ㉢은 소설의 갈등 양상, ㉣은 소설의 주제를 통한 깨달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반면 ㉤은 소설의 구조와 현실의 구조를 연결시켜 소설의 시대적 배경에 초점을 맞춰 비평하고 있네. 즉, ㉤은 작품의 외적인 요소 중 현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비평하고 있는 거니까 바로 답이지. 답 ㉤

53. ‘그래서 나는 석공의 ~ 사실을 밝혀 두고 싶다.’에서 사건의 관찰과 서술 사이에 시간적 간격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리고 이 글에서 초점이 되는 인물은 아버지인데 ‘코와 눈이 그렇게 크고 음성 또한 굵직한 신사’와 같은 방법으로 인물을 묘사하고 있어(㉢). 또한 이 글에서 아버지가 석공네 마당에서 노래를 부른 것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서술자의 고향이 여전히 전통적인 신분 질서를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모습은 사건이 전개됨에 따라 드러나고 있고(㉤). 하지만 이 글은 서술자 ‘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전달하고 있어. 따라서, 장면에 따라 정보 전달자가 다르다는 ㉡는 잘못된 설명이지. 답 ㉡

54. <보기>의 시조는 높은 신분이거나 낮은 신분이거나 사람은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내용이야. 즉, 평등 의식을 담고 있는 시조지. 이 시조를 읊으면서 몸가짐을 가다듬었다면, 아버지는 평등 의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 이런 아버지가 행랑살이를 하던 이의 잔치 마당에서 노래하고 춤을 춘 것은 당시의 전통적인 신분 질서를 뛰어넘고자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 따라서, 아버지의 전기를 쓴다고 할 때, 이어질 내용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야. 답 ㉢

55. 중요한 것은 원작의 시점을 유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서술자의 위치를 따라가며 카메라를 이동시키면 돼. 처음에 ‘내가 다시 ~ 석공네 마당으로 달려들었을 때’라고 했으니 제일 먼저 카메라는 ㉠ ‘석공네 울 문’에 놓여야 해. 그 다음 ‘안마당엔 어른들이 겹겹으로 둘러서서’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카메라는 ㉡ ‘울 안’에 놓여야 하지. 그리고 ‘나는 키가 모자라 ~ 쪽마루에 비비대고 올라가 넘어다보았다.’고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카메라는 ㉢ ‘쪽마루 위’로 이동시켜야 하고. 따라서, 카메라의 위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이야. 답 ㉠

56. ‘행동이나 사태, 감정 따위가 은근하게 조금씩 변화하는 모양’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단어는 ㉣ ‘슬몃슬몃’이야. ㉠ ‘가만가만’은 ‘움직이지 아니하고 말없는 모양’ 또는 ‘드러나지 아니하게 살며시 하는 행동’의 의미를 갖고 있어. ㉡ ‘너울너울’은 ‘부드럽고 느릿하게 움직이는 모양’이라는 뜻이고, ㉢ ‘스물스물’은 ‘살갗에 작은 벌레가 기는 것처럼 근질거리는’ 것을 의미하지. 또, ㉤ ‘어른어른’은 ‘무엇인가 분명하지 못하고 흔들거리는’ 것을 의미해. 답 ㉣

57. (가)는 국어의 어휘상의 특징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글이고, (나)는 우리말의 특징을 고려해 우리말을 표현력이 더욱 풍부한 언어로 만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글이야. 그러니까 (나)는 (가)와 관련된 글이면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글이지. 따라서, (가)와 (나)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야. 답 ㉤

58. (나)의 마지막 문단을 보자. ‘어휘의 절대량을 늘리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기존 어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방언이나 옛말 등을 찾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가), (나)에 ‘사전에서 방언이나 옛말을 찾아 쓰는 것은 어휘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내용은 없지. 따라서, ㉡가 잘못된 것. 답 ㉡

59. ㉣를 보자. ‘-이-’나 ‘-기-’와 같은 접미사를 붙여 사동사를 만드는 것은 합성법이 아니라 파생법에 해당

돼. 답 ④

60. <예문>의 () 안에 달빛을 받아 선명해진 달맞이꽃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가 들어가야 해. <색채어 분화 원리>의 2를 보면, ‘샨-’은 양성 모음을 갖는 어휘에, ‘싯-’은 음성 모음을 갖는 어휘에 붙는데, 둘 다 ‘색깔이 더 짙음’을 표현한다고 했네. ‘노란’은 양성 모음을 갖는 어휘니까 ‘샨노란’이 맞는 표현이지. 따라서, ③이 적절해. 답 ③